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현대극장 유감, 단관극장의 추억

현대극장 건물이 헐리고 주차장으로 변했다. 제주 근현대사의 랜드마크인 현대극장은 대중의 관심밖에서 2019년 1월에 철거 완료됐다.

서 여러 공연과 행사를 개최했던 곳이다. 1953년부터 영화전용 극장으로 사용되다가 1978년 폐업한 뒤에 건물만 남아 있었다.

아세아 극장은 1978년에 폐관되고, 이제 남아 있는 극장 건물은 1964년에 개관된 동양극장 건물이다.

된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 기록한 '굿쟁이, 로펜바리, 이동영사'를 출간했다.

삼도2동 중앙성당과 화교소학교 인근에 있었던 현대극장은 1944년에 무성영화와 유랑극단 공연을 위해서 활용되다가 1948년에 정식 허가를 받아

열린마당

감귤 강제 착색 이제는 그만



오문한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며칠 전 광주광역시에 일이 있어 당일 치기로 갔다 왔다. 일을 마치고 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모퉁이에 후식용 감귤이 눈에 띄었다.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으로 유통한다면 선량하게 감귤 농사를 짓고 1년에 한 번 감귤을 수확해 목돈을 마련하여 1년 살림살이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다른 농사꾼들은 제값을 받거나 팔거나 나만 배를 불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뉴스-in

“도내 수출기업 도움 되도록 전력”

경제통상진흥원 수출 상담회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추진해 주목.

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수출 기업들을 위해 지난 10월 5-6일 제주주한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약 334만 달러(한화 40억원) 규모의 계약 및 LOI(구매의향)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

진흥원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통상사무소 네트워크 등 무역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

아동학대 사전 차단 주력

○...제주시가 내달 10일까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

설치기준 의무이행 여부(60일 이상 보관 등)와 함께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도 모니터링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 설치

○...서귀포시가 서귀포자연휴양림 일대에 도내 최초로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며 초동진화 효율을 기대.

11월 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먼거리에서도 제어할 수 있으며 높이 14m인 수막 설비타워 2개소와 물 40t을 저장할 수 있는 물 저장 탱크 등으로 구성.

시 관계자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설했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

사설

가을철 사고위험 고조... 피해 예방 만전을

가을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면서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해 가을철만 되면 단풍객들로 인한 산악사고, 화재·교통사고에다 각종 안전사고 등이 증가세를 반복하는 현실에서다.

등산의 계절 가을 산악사고는 대표적인 '계절 사고'다. 제주소방본부가 지난 7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발표해,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정도.

월별 분석결과 전국 교통사고는 10월, 11월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54건 발생해 평상시보다 11.2% 더 많았다.

모든 안전사고는 정해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 안이함에서 일어난다. 시민 각자가 집을 나서기 전 사고위험에 대비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때.

투자유치 성적, 이렇게 초라할 수 있나

제주도의 해외 투자유치 성적이 말이 아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투자유치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있으니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엿그제 발표한 2021년 투자유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182억 1000달러다.

조를 이루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투자유치 신고금액은 8900만달러(31건)에 그쳤다. 작년 동기 3억5900만달러(61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의 해외 투자유치 실적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투자유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다. 세계 각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왜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는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홍명진(주)엠제이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어머니 동래정씨 향생(유인, 향년 89세)
계서 서귀 2021년 10월 9일 17시 1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배씨 선인(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배씨 일길(향년 10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재은(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자본감소 및 주권채출공고
당 회사는 2021년 10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약 450,800,000원 중 4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800,000원으로 하여, 그 방법으로 주식 40,000주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회관하는 주주들로부터 무상 양도받아 임의(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45,080주를 5,08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